

金星電線(株), 原電설비 對中수출

金星電線(株)가 국내최초로 중국에 원자력 발전소용 설비를 수출한다.

금성전선은 최근 중국 원전기기구매공사와 원자로 주변의 환경을 조절관리하는 안전등급 설비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서 양측은 수출대금은 추가 결정하고 설비는 연말까지 전량 공급키로 합의했으며, 설비는 설계 및 기기 검증에서 耐地震 시험과 원자로의 냉각제 손실 사고 조건아래서 방사선 및 열에 대한 내구시험을 거쳐야 하고 최소한 4년간 수명을 보장해야 하는등 고도의 안전성과 엄격한 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특히 이번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전용 설비는 그동안 금성전선이 국내 원전설비를 자체 제작 공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오존파괴지수가 0인 신냉매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금성전선은 작년 원자력 발전설비 품질보증시험 전문기관인 미국 WYLE시험소로부터 관련설비에 대한 안전등급 자격을 획득했고 국내 영광 3,4호기 및 울진 1, 2호기 등에 이 설비를 납품했으며 92년 국내 최초로 대만에 300만달러 상당의 설비를 수출한 바 있다.

금성전선은 향후 원전용 설비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동남아·미국·멕시코 등에 진출할 계획이다.

大成電線(株), 베트남 工場설비 확충

大成電線(株) (代表 : 梁始伯)는 베트남의 전선수요 급증에 힘입어 베트남현지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한다.

大成電線은 베트남 현지공장의 통신케이블 생산량을 현재의 월산 30t에서 1백80t으로 6배나 늘리기로 했으며 베트남의 전선수요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총 5백만달러를 투자, 현지공장인 비나대성케이블사의 생산능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지 3천5백평, 건평 1천2백평 규모로 93년초 본격 가동에 들어간 하노이 현지공장 증설에는 대당 가격 7억원인 통신케이블 생산기계 탠덤(TANDEM) 2대를 비롯 압출기 드로잉머신등 부속설비가 설치되며, 비나대성케이블의 금년 매출은 지난해 보다 1백% 이상 늘어나 2백50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편 비나대성케이블은 대성전선과 베트남체신부(DGPT)가 55대 45로 합작한 회사로 자본금은 3백 70만달러이며 전체직원은 70여명으로 한국의 베트남 진출 1호 전선공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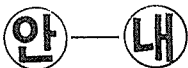
(株)日進, 원격 안전관리시스템 供給

(株)日進 (代表 : 崔圭復)이 포항제철 사원아파트 약 7천 세대에 원격관리시스템을 공급한다.

지난 90년부터 3년간 5억원을 투입, 지난해 자체 개발완료한 원격안전관리 검침시스템 (모델명 RAMS)을 향후 3년간 경북 포항시 효자동 포항제철 사원아파트 총 6천8백11세대에 설치, 공급기로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日進은 포철사원아파트 약 7천세대중 우선 8백94세대분을 올해 공급기로 하고 잔여분은 오는 96년말까지 공급완료할 계획이다.

日進이 이번에 공급하는 시스템은 가스, 수도, 온수, 전기, 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검침하고, 관련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자동검침기능과 입주자 출타 및 부재중에도 비상사태를 감지, 이를 안전관리회사나 소방서등에 연락해주는 자동안전관리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 SIEF '94 참관 바이어리스트 정보제공 ◆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서는 '9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94) 개최기간중 참관한 바이어 리스트를 품목별로 구분·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관련업계에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는 振興會 국제과 (Tel. 424-490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